

[헌금계좌 : 신한은행 301-01-916707 안동교회]

* 보내는분은 필히 성명+헌금종류를 표기해주세요

예) 홍길동주정, 홍길동감사, 홍길동십일조, 홍길동해외선교...

<십일조헌금>

김난향 김문수 김미선 김성미 김은주 남택권 박경혜 박노향 박지윤 유정희
 을지자갈 이마리 이본 이주영A 진주영 최종걸 황정애 황재금

<주정헌금>

강기석 고명수 고헬렌혜순 곽홍섭 김경선 김경아 김대영 김미란 김민수 김봉래
 김세운 김연신 김영실 김영자A 김영희B 김유선B 김은주 김재준 김정단 김정호
 김종만 김종순 김주미 김한숙 김형주 김혜자B 김화자 남보라 노찬희 노하윤
 마명규 문은희 민동호 박선숙 서영희 손선경 송홍식 양은선 원명자 유양재
 유왕재 유준자 유혜정 유화명 윤주일 윤혜원 이광섭 이선자 이성 이연화
 이영수 이영순 이영은 이용우 이진숙 임길서 임동희 임재호 임현우 장형순
 전병권 전봉순 정미란 정옥자 정주원A 정혜숙 재갈희선 조민숙 조영희 조정애
 차은미 최경일 최경준 최아름 최예순 최웅진 최재왕 최종걸 한미경 함영림
 허동각 황영태 황옥희

<주일헌금>

김영미 백종관 변경인 송유나 우순형 이광태 이선욱 이형섭 최은진 최호정
 무명5

<감사헌금>

고헬렌혜순 김미정 박종철 백도형·백수경·백진경(어머님추모)
 유경희(건강한 몸으로 신앙생활) 유정근(생일) 유혜순 이진영 진주영
 차은미(결혼40주년) 추영일(범사) 황경선 황인욱 무명3

<목적헌금> (3050후원) 송홍식

<선교헌금>

(북방) 송숙연 이주영A
 (해외) 김종만 송숙연 이주영A 황영태

✠ 예 배 시 간 안 내 ✠

예 배	시 간	장 소	담당교역자	
주일예배	영아유치부	오전 11시	영아유치부실	김은주
	아동부	오전 11시	아동부실	최다성
	중고등부	오전 11시	중고등부실	장희찬
	1부	오전 9시	예배당	황영태
	2부	오전 11시	예배당	황영태
	3부(청년)	오후 1시 30분	예배당	김태진
수요기도회	오후 7시	예배당	황영태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시 30분	예배당	황영태	

원로목사	유경재	2부찬양대지휘	김성미
담임목사	황영태	1부오르가니스트	민동림
부목사	김경아 마명규	2부오르가니스트	김연주
파송선교사	을지자갈(몽골)	간사	임동희
협력선교사	이영철 오영환	관리	김기복
전도사	김태진	어린이집원장	김은주
교육전도사	김은주 장희찬 최다성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16:13)



2부



2026년도 주제 :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교회 II
 창조세계 보전의 해

“길 잃은 세대를 위한 나침반”

요한복음 16:12-15

수많은 선택지 속에서 현대인들은 늘 후회와 실패를 두려워하며 극심한 '결정 장애(Decidophobia)'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마치 내 눈앞의 정답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초자연적인 내비게이션(GPS)처럼 오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리모컨으로 조종하는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시절,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아니라 "주의 영(성령)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생 영적 갓난아기로 머물지 않고, 스스로 지혜를 분별하는 장성한 자녀로 자라나길 원하십니다. 성령님의 가장 위대한 인도하심은 미래에 대한 정보 유출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성경)을 통해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외부의 길을 정해주는 GPS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가치관과 취향을 새롭게 밝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게 하는 '영적 나침반'입니다.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도 두려움의 안개를 뚫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지혜를 신뢰하며 담대하게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으십시오.

소그룹 나눔 질문

1. [결정 장애와 불안] 인생의 크고 작은 선택(진로, 이직, 결혼, 비즈니스 등)의 갈림길 앞에서, “잘못된 선택을 해서 내 인생이 꼬여버리면 어떡하지?”라며 극심한 불안이나 결정 장애를 겪었던 구체적인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2. [나침반의 신앙]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매 순간 정답을 정해주는 GPS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정북향으로 가리키는 내면의 나침반을 심어주시는 역사”라는 말씀이 나에게 어떤 위로와 도전을 줍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당신이 원하는대로 하라”는 아우구스티누스의 통찰처럼, 내가 이번 주에 성령의 지혜를 의지하여 담대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려야 할 선택은 무엇입니까?



*6월 안동교회 중보기도

- 6월에는 겸손하게 하소서. 타인을 귀히 여기고 존대하며,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히 엎드리게 하소서.
- 임직을 통해 세우신 항존직분자들을 주님의 손에 붙드소서. 무엇보다 말씀 안에 뿌리내리고, 기도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며, 맡겨진 직분을 주께서 부르신 소명으로 기쁘게 감당하게 하소서.
- 이라과 이스라엘, 갈등과 분쟁의 땅에서 수많은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주여, 증오와 보복의 사슬을 끊으시고 이 전쟁을 속히 멈추어 주소서. 열방을 다스리시는 주께서 그 땅에 당신의 평화를 이루소서.

